

Elaine Phillips 박사, 구약 문학, 강의 32, 바벨론 포로 주변의 선지자들

© 2024 Elaine Phillips 및 Ted Hildebrandt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당신은 너무 조용해요. 아마도 여러분 중 절반 정도만 여기에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수업에 44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리고 저의 빠른 안구 수는 약 23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흥미로운 통계입니다. 봄철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며, 시험 다음 날에도 발생합니다.

나는 그것을 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 다음 화면에 나올 매우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 내가 앞으로 할 말을 그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이메일로 게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수업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나를 끌어들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시험 통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은 곡선 이후에는 잘 수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동안 캐리가 시험을 상자에 다시 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번 주에 복습 세션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방금 시험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최종 시험 전에 복습 세션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그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 수업의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일인 금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일을 끝내고 끝내고 다른 일에 대해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다음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시험인 첫 시험일 전날은 독서의 날입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표입니다.

따라서 메이크업 시험 중 하나를 치르고 있는데 그중 하나를 놓쳤다면 이것을 적어 두세요. 5월 6일에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시험이 언제 어디에서 열릴지 묻지 마세요. 아뇨, 일해야 해요. 그것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시험을 치르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눈부시게 금색과 주황색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시험 중 하나에서 원하는 것보다 낮은 시험 성적을 받았다면, 첫 번째 시험에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경우, 선택 사항이며 에세이 형식으로 다시 수강하는 것은 전적으로 선택 사항입니다.

메이크업 에세이 시험과 동시에 시행됩니다. 즉, 5월 7일, 4시부터 6시, Jenks 112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모든 시험에 대한 학습 문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모두 준비하세요. 나는 당신이 대답할 것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시험에는 이를 활용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게시된 전체 질문 중에서 답변하도록 하는 5~8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난 이것만 말해야 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않는 한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준비하고 읽는 데 시간 낭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당신의 낭비이기도 합니다.

Matt,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적절한 시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응, 그랬구나. 가보자.

따라서 오늘 밤 마지막 검토 세션은 아마도 다음 월요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습 세션에서 제가 하려는 것은 누적 최종이므로 아마도

여러분이 배운 복습 내용을 간단히 검토할 것입니다. 세계고시 누적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나는 리뷰 내용을 제외하고는 준비된 것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메이크업 시험을 치르고 계시다면 리뷰 세션에 오시면 제가 리뷰 세션을 마친 후 메이크업이나 예전 시험 등에 관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질문을 모두 받을 것입니다. ,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좋아요, 고마워요, Matt. 좋아요.

그건 그렇고, 나는 당신이 이전 시험을 모두 저장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Matt가 방금 말했듯이,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했듯이, 당신의 최종 시험은 이전 테스트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테스트하지 않은 마지막 유닛. 하지만 이전 테스트를 저장하고 다시 살펴보세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나는 그 중에서 곧바로 질문을 들어 올립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봄 선물이야. 그러니 예전 시험이 출다는 걸 알면 괜찮습니다.

모든 키가 게시되어 있으므로 꽤 잘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은 여러분 중 일부가 제가 Blackboard에 있는 수익 항목 목록을 연구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봐, 알았지? 수익금은 기말고사에서도 나올 테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이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어떤 이익이 이것을 했는지, 어떤 이익이 그렇게 했는지, 어떤 이익이 이것이었는지 등등. 그것은 당신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질문이 있나요? 응, 레베카. 보충시험은 각각 개별시험인가요? 각 단위마다. 다른 물건을 만들고 싶다면.

네, 각 단원에는 대략 12~15개의 질문 세트가 준비되어 있고 그 중에서 제가 말했듯이 그 중에서 5~8개 사이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Blackboard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보고 거기에 어떤 것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에 관해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가정. 좋아요. 우리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살다. 멋진 시편. 정말 훌륭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구절의 한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서 전체 내용을 읽고 목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번 주를 함께 시작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명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와 피로 속에서, 어쩌면 많은 일들로 인해 낙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끼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아침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건강에 감사하고, 바깥의 아름다움에 감사하고, 이렇게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사를 주시고 부어주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에 감사하며,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도록 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우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존심을 깎아내야 할 곳에 우리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격려가 필요할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의로 교육하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그 시대와 관련된 선지자들입니다. 물론 그 시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특히 느부갓네살에게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관점에서 이 시기를 겪었지만, 예레미야서로 넘어가면 우리가 읽은 가장 슬픈 선지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조금 복습하자면, 주말 동안 많은 일들이 잊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나도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당신이 치른 시험의 미해결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사야와 미가의 예언 사역 기간 동안 어떤 초강대국이 가장 큰 위협이 되었습니까? 듣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초강대국? A로 시작하나요? 아시리아, 그래, 아시리아, 좋아. 다음 질문, 이사야는 어떤 선한 왕의 조언자로 봉사했습니까? 히스기야, 훌륭해요. 토라가 발견되는 동안 개혁을 시작한 왕은 누구입니까? 요시야, 그리고 이것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넘어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그 사건, 즉 개혁, 토라 등의 발견,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빌로니아인들에게 함락되기까지 대략 몇 년이 지났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야구장 수치가 있습니까? 아, 북왕국 722년을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죠, 남왕국은 586년에 멸망하는데, 요시야 시대의 개혁은 대략 언제입니까? 그건 내가 알려달라고 한 데이트가 아니어서 더 심하다.

하지만 앞으로 40년을 생각해 보세요. 620년경, 627년에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종교개혁이 서서히 전개됩니다. 한 번의 큰 실수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일종의 과정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발견되고, 토라가 발견되고, 놀라운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587년에 남왕국이 완전히 해체되는 요시야 치하의 사건 사이의 한 세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레미야가 바로 그 사건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박국, 오바다, 스바냐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시대의 기념비적으로 중요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소 간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가 유감입니다.

지금쯤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한 구절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23장은 전체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다루는 장입니다. 그리고 물론, 거짓 선지자들에 관해 신랄하고 무서운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히 이를 말할 것이라 하십니다. 내 말이 불 같고 바위를 부수는 망치 같지 아니하냐? 물론, 우리가 보게 될 것과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예레미야의 부르심은 전혀 수용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 말씀을 신실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나 미가의 경우가 나쁘다고 생각했다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셨다면 그 모든 상황이 얼마나 완전히, 완전히 황폐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당신이 선지자라고 상상해보세요. 아니면 지난 주 수도에서 65마일 이내에 탈레반이 있는 이슬라마바드로 가세요. 그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상황을 생각해 본 다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말하는 내용에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선지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실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당신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절을 인용할 때 말하는 것은 쉽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말을 받은 사람은 그 말을 성실하게 말하십시오. 좋아요, 여기서 무엇을 얻었는지 봅시다. 정치적 상황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간단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그게 중요할 거예요.

사실 이제 그만하자. 힐기야는 누구입니까? 들은 것 같은데, 그래, 크리스 . 신부님, 좋습니다.

네, 그 사람이 토라를 찾는 일을 담당하는 신부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예레미야를 식별하기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2절 아나돗 제사장 중 한 사람 유다 왕 암몬의 아들 요시야 제13년과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13년에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제11년 오월까지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 주민들이 사로잡혀 갔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요시야 13대 통치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그 중 하나는 중간에 있는 왕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어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연대순으로 한 지점에서 시작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연대순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시드기야에게 주어진 예언을 보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여호야긴과 여호야김으로 건너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왕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예레미야가 전하는 신탁이 있다면,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셨다거나,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왕의 이름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름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아침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깨진 기록입니다. 역사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언약 집행 중재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사건을 언약 규정에 따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역사적 사건은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바빌로니아인.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으며 느부갓네살이 우리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의 집게발이 점점 더 가까워질 수록 그들은 서쪽에서 휘둘러 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해안 평야로 내려온 다음 세펠라를 통과하여 올라갑니다. 지리학적으로 다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34장 6절과 7절에서 매우 가슴 아픈 언급을 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면 모든 요새화된 성읍 중 라기스와 에스기야만 남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황이 그만큼 나쁘다.

그래서 거대괴수는 기본적으로 단지 위로 올라가고 있으며, 상당히 곧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중 하나는 에스겔과 다니엘을 다룰 때 특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겔-다니엘 연구를 위해 바로 여기 있는 이 작은 자료를 참고하세요.

느부갓네살은 한 번만 와서 모든 사람을 붙잡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데려가는 추방자들의 물결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가 605년에 처음으로 추방자들의 물결을 잡았고, 그 다음 597년에 두 번째 추방자들의 물결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무리가 떠나갔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 이제 이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제가 거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29장에서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그곳에 이미 유대인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에게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빌론에 정착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정착하고, 집을 사고, 살 곳을 찾고, 당신이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

그런데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에스겔과 다니엘도 일찍 하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초기 추방의 물결 속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모두 바빌론에 있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괜찮아요? 내 말은, 우리는 그래야만 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이해합니까? 괜찮은. 비록 현시점에서는 이집트가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바빌론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 즉 남아있는 작은 유다 왕국에 살고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유혹적인 대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큰 힘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다른 사람과 동맹을 맺는 것은 항상 유혹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집트와의 동맹 시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러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그는 바벨론이 오고 있으므로 이것을 안고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바빌론과 대립하기를 원하는 정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매우 간단하게 말해서 정치적 상황입니다.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지도를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통제 지도와 동일해 보이지만 지금은 바빌로니아이고 여기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그 백성이 애굽으로 끌려갈 때쯤에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집트로 향하는 붉은 화살을 들고 예레미야를 붙잡아 데리고 갑니다.

정도로까지 통제권을 확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대한 제국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번 주 말에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페르시아인들에 의해 전복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그는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언약에 대한 깊은 관심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언약을 집행하는 중재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했고, 저는 계속해서 그것을 집에 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에 대한 에세이 질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언약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깊고 심오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계속해서 또 다시 보게 되는데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이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토라를 발견한 힐기야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위반한 이러한 언약 규정과 관련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도 귀를 열었다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힐기야의 아들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강력한 언약의 관점에서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이전에 이 호출을 살펴보았지만 1장 5절에서 이것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태 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노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리고 계속해서 9절에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여러 민족에게 임명하여 뽑고 허물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우리가 선지자들에 대한 이 중요한 서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예시 중 하나로 사용할 때, 예레미야서는 실제로 그의 책의 끝까지 국가들, 바벨론, 모압, 에돔에 관한 광범위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 블레셋 등.

그래서 그는 열방에 대한 예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책의 처음 3분의 2는 유대와 예루살렘이 앞으로 겪게 될 일에 대한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부르심 6장을 읽을 때 이사야에게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레미야의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로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과 쇠기둥과 놋성벽을 삼았느니라.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자, 이 목록에 없는 유일한 것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교전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정말 힘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그다지 만족하지 않는 것은 단지 몇몇 배신자들이 아닙니다.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약간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휴식을 취하고 독서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러한 작은 범주 각각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야겠습니다. 우리는 45분 후에 예레미야서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것에 한 학기 전체를 소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모든 장에는 당신이 실제로 붙잡고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언젠가 설교자가 되거나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예레미야는 매우 설득력 있는 정보를 풍부하게 얻었습니다.

그가 예언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려는 내용은 실제로 분열되고, 불확실하고, 겁에 질리고, 이런 저런 종류의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압도당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를 염두에 두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 준 제 1장의 작은 목록에는 왕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왕들과 정면 대결을 벌이는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 마치 대통령 집무실에 와서 무슨 말이라도 하는 것처럼요.

나는 무서운 사업이다. 36장에서 특별히 흥미로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나열한 두 가지가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36장은 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이 내용을 조금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32절을 모두 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내용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것이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바룩을 보냅니다.

바룩은 그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가서 공개적으로 두루마리를 읽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두루마리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부 공무원은 이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약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룩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쓰게 되었나요?"라고 묻습니다. 예레미야가 지시했습니까? 자, 저는 여러분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 18절에 있습니다.

바룩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모든 말을 잉크로 두루마리에 썼습니다. 그러자 관리들은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서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쓰여진 내용이 정치적 기득권층에 잘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22절입니다.

아홉 번째 달이었습니다. 왕은 그의 앞에 화로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겨울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달은 춥다는 뜻이다.

12월 같네요. 아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았습시다. 정말 실망했어요.

아니요? 테드가 그랬어요. 알았어요. 12 월 말이에요 . 아시다시피 보스턴에서 12월이 반드시 12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춥고 습하며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는 화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두루마리 서너 단을 낭독할 때마다 왕은 서기관의 칼로 그것을 잘라내어 두루마리 전체가 불에 탈 때까지 화로에 던졌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듣고도 왕과 모든 신하들은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옷을 찢지도 않았습시다. 왕이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한 두루마리의 말씀을 불태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너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첫째 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아시다시피 왕은 주님의 말씀을 불태워 없애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뻔뻔스럽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모욕입니다. 둘째, 그것이 그를 떠나게 만들지 않았습시다. 아시다시피,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어떤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바로 다시 돌아오죠, 그렇지요? 예레미야만이 주님으로부터 또 다른 신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다른 세트를 말하면 안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백성을 유죄 판결하고 왕을 유죄 판결하기 위해 다시 그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흥미로운 그림입니다.

또 왕들이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곳이 또 있는데 이곳은 가장 놀랍도록 끔찍한 곳 중 하나입니다. 아, 아직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을 행해야 하는데, 이것이 아마도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주께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대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며, 가장 끔찍하고, 끔찍하고, 극악한 것들을 숭배하러 가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장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평화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왜 문제일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안녕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가 될 것입니다. 뭐가 문제야, 레베카? 그렇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을 불순종하면 평안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약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농업에 어려움을 겪고 비도 내리지 않으며 기근과 가뭄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들의 공격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규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평화를 예언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자 가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다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합의였습니다. 모두 좋은 것 같았습니다. 예레미야는 7장에서 그것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거짓된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이곳은 여호와와 성전이다, 여호와와 성전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즉, 우리는 여기에 주님의 임재를 갖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5절, 너희가 참으로 너희 길과 행위를 돌이켜 서로 공의로 대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여기서 살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보라, 너희는 헛되고 거짓된 말을 믿고 있느니라. 너희가 도적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위증하고 분향하여 보석금을 내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다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가 안전하다 하리로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해도 안전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에게는 강도의 굴혈이 되었느냐? 예수님은 지난 수요일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언급했던 이사야 56장과 함께 이 구절을 인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 표현을 사용하여 너희 모두가 노골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언약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서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지해지세요. 어쨌든 그는 문제될 것이 없고 평화롭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20장에서는 그들 중 바스홀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주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주식은 관광 명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윌리엄스버그 같은 곳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주식 앞에서 포즈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덥고 건조하며 굴욕적인 곳입니다. 신체 기능이 멈추지

않고 공공 장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레미야는 매우 공공장소에 주식을 매겼습니다. 우리는 또한 28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건을 접하는데,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27장에서 예레미야는 멩에를 메었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가 행한 상징적 행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에 대해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멩에를 메었습니다. 무거워서 불편해요.

그는 바벨론 왕의 멩에가 그들 위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중 하나인 하나냐라는 사람이 와서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냐는 감히 여호와를 대신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멩에를 꺾으리라 2년 안에 나는 이미 바벨론으로 빼앗긴 모든 것을 다시 가져오겠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멩에를 꺾으리라

그는 그것을 두 번 말합니다. 거기에 예레미야가 서 있습니다. 멩에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6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의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과 나보다 앞서 살았던 선지자들은 옛날부터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에만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은 멩에가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그는 또 다시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만 하나냐에게 갑니다. 13절. 가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가서 하나냐에게 당신이 나무 멩에를 부러뜨렸다고 전하십시오. 그 자리에 철 멩에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나라들의 목에 철 멩에를 메우겠다. 그리고 18절.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한다. 올해 당신은 주님에 대한 반역을 전파했기 때문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 일곱째 달에 하나냐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레미야를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적인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롭죠?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23장을 다시 보십시오. 전체 장은 항상 거기에 만연해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저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야 합니다. 그의 고향 사람들도 그를 없애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제거하자. 사실상 그를 암살할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11장의 끝 부분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생명을 노리는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하신 것이니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음모를 그에게 밝혔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예레미야의 감정을 읽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에서 옳은 일을

옹호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면, 고든 칼리지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한 순간도 생각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아마도 당신도 예레미야가 느꼈던 감정을 아주 조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굵은 점을 주목하세요. 잠시 후 4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5장 3절에 유다 왕 암몬의 아들이여 유다 왕 요시아 제13년부터 23년 동안 오늘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거듭거듭 말했지만 너희는 듣지 않았다. 23년 동안 설교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23년 동안 수업을 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나요? 아무도 없나요? 예레미야의 심정이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레미야의 마음이 완전히 상한 4장으로 돌아가면 상황은 더욱 비극적이 됩니다. 사실 4장을 읽으면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예레미야의 말과 주님의 말씀은 이 시점에서 일종의 융합된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행위, 나는 4장 18절에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행위와 행동이 이것을 당신에게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형벌입니다. 얼마나 쓰라린지 마음에 찔립니다. 아, 나의 괴로움, 나의 괴로움.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나의 내면의 용기, 나의 내면의 용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긴장하거나 겁을 먹거나 무엇이든 할 때 배가 정말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중 일부.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그 사람 안에서 휘젓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괴로움은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할 감정적인 단어입니다.

나는 고통에 몸부림친다. 아, 내 마음의 괴로움. 내 마음이 두근두근해서 침묵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전투의 함성을 들었습니다. 재난은 재난을 따른다. 온 땅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나의 천막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나의 피난처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내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그들은 나를 모른다.

정신없는 아이들이네 그들은 이해가 없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기는 능숙하지만 선을 행할 줄은 모릅니다.

내가 땅을 보니 혼돈하고 공허하였더라. 하늘에서는 그들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산을 보니 산들이 흔들리고 언덕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살펴보니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새가 날아갔습니다. 내가 보니 그 기름진 땅은 사막이었던더라.

그리고 그것은 그런 맥락에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가장 괴로워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지 않을 20장에서 그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한탄합니다.

그가 이런 특별한 위치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행하는 것은 비극적 인 역할입니다. 글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이미지를 살펴보기 전에, 그 중 하나가 그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작은 지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응, 레베카 맞지?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할까요? 즉, 거짓 선지자들은 왜 현실이 아닌 평화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선지자들이 평화를

설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메시지가 훨씬 더 행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말은, 같은 종류의 맥락을 보세요.

그리고 나는 아마 이 시점에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 목회자들은, 어쩌면 가장 말하지 말아야 할 수도 있지만,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은 어려운 메시지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설교해야 할 메시지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성경을 선택적으로 읽고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지자들도 아마도 같은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단지 왕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설교하면 인기가 있습니다. 정말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예레미야처럼 삶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때입니다. 하지만 예,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상징적 행동 중 하나에 대한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리에 대한 본문을 다시 읽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마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다윗 성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서쪽 언덕 지역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바로 저쪽에 사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드론 골짜기 외에 힌놈 골짜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더럽혀진 일, 끔찍한 일, 살육에 관해 이야기할 때, 실제로 그들은 그곳을 학살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도벳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그들이 이방 신인 몰렉에게 제사를 드린 곳이었으며, 그 일부는 그 곳이었습니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통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온갖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힌놈 골짜기는 불타고 쓰레기와 쓰레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골짜기의

도벳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과 관련하여 이 모든 가증스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힌놈.

게히놈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금 메모해 두었습니다 .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게히놈 의 계곡 . 그리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복음서에 나오는 그리스어로 가져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게헨나(Gehenna)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은 신약성경 수업 시간에 이 문제를 다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게헨나에 관해 말씀하실 때, 연기가 나고 악취가 나고 온갖 괴로운 일이 일어나는 곳으로 그들이 잘 알고 있을 장소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거기 이미지가 바로 그거예요.

글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몇몇 이미지로 향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이 계곡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다양한 매체 에 관해 이야기할 때 말한 것 중 하나는 당시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과 같습니다.

온갖 시각 자료를 가지고 여기 서 있으면 파스텔 톤이 다 나올 것 같죠? 그러면 수업 시간이 정말 흥미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설교를 많이 하신 목사님, 도움이 되십니다. 알다시피, 그것은 매혹적인 일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주목을 받고 예레미야의 관심도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흥미로운 것 몇 가지만 나열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로부터 아마포 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벗고 물어 버리십시오. 습하고 습한 곳, 샘 근처. 그리고 나중에 찾으러 가세요.

그리고 물론 이 전체 설명의 마지막에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허리에 띠가 묶인 것처럼, 이는 실제로 백성이

허리에 묶여 여호와께 묶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시다시피 정말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백성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더 이상 여호와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벨트가 벗겨지고 그것들도 낭비될 것입니다. 거기 재미있는 말장난이 허리에 묶이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그는 도공의 집에 간다. 물레로 도자기를 만들어 본 분들이 많이 계시죠? 좋아요, 알다시피, 바퀴를 돌릴 때,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이 배는 약간 솟아오르게 됩니다. 훌륭해요.

바퀴가 돌아가니까 좀 더 수월해졌네요. 점토의 이러한 측면은 숙련된 도공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켜보는 가운데 토기장이는 항아리에 흠집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부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도공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아주 일부를 보여줄 때, 제가 말하려는 것은 바로 마음의 결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밀어내시고, 파괴하시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장은 힌놈 골짜기에 관해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것도 흥미로운 일이죠.

토기장에게 가서 질그릇을 사세요. 아마도 여러분은 제가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토항아리는 고대의 비닐봉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보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결코 생분해되지 않는 비닐봉지와 달리 점토병은 생분해됩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냄비를 깨뜨리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결국에는 분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힌놈 골짜기는 쓰레기장입니다.

토기장이에게 가서 질그릇을 사세요.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토기문 입구 근처 벤힌놈 계곡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거기서 선포하여라. 그리고 나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다시 정죄를 받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자들이 보는 동안 향아리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라.

이 토기장이의 향아리가 깨져서 고칠 수 없는 것과 같이 내가 이 나라와 이 성을 깨뜨릴 것이다. 그들은 죽은 자들을 도벳에 더 이상 자리가 없을 때까지 장사할 것입니다. 좋아요, 또 다른 극적인 이미지입니다.

예레미야도 무화과 바구니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해석도 있습니다. 무화과 두 바구니라고 해야 할까요.

좋은 무화과. 여기서 그의 메시지 중 일부가 반역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 가서 자원하여 행하면 무엇이 좋느냐? 그게 가장 큰 적이에요.

그러나 이 환상에서 주님은 그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바벨론으로 가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점이겠죠? 나쁜 자들은 시드기야 치하에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입니다. 시드기야는 그 자신도 거의 재앙에 가까운 마지막 왕입니다. 우리는 이미 멍에 그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더 이상 시간을 소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여기에 개입하는 다른 챕터가 너무 많아서 할 시간이 없습니다. 언젠가 다시 예레미야서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멍에를 메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멍에를 백성들에게 메울 것이라는 상징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유다, 에돔, 모압, 암몬 및 주변 국가들만이 아닙니다. 두로 와 시돈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상징적 형상입니다. 아직 글을 쓰고 계신 분들도 계속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겠습니다. 괜찮은.

콘텐츠. 이봐, 여기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 화면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무엇일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불순종했으며 그에 따른 결과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선 그는 언약을 계속해서 깨뜨리는 비극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예레미야에게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십시오. 부서졌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복원 측면에서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물론이고 그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전달되는 부분이 바로 브레이킹 아이디어이다.

그리고 그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여기서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입니다. 추방과 심판.

여기서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25장 11절에 보면 이 온 땅이 황무지가 되리라 유다뿐 아니라 이 나라들도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70년만 참으세요.

그건 그렇고, 나는 여러분 모두 내가 다음 부분에서 얻은 모든 참고 자료를 맹렬히 복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모든 것을 복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단지 그 점을 지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70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다니엘은 이것을 언급할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서는 예레미야서에서 말한 대로 70년을 말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권위 있는 말을 이해했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여기 일찍부터요. 정경이 확립되기까지 서기 4세기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미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이 여호와와 권위 있는 말씀임을 깨닫고 70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여전히 2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진노의 포도주가 담긴 이 잔을 내 손에서 거두라 하신 것입니다. 정말 멋진 이미지네요.

내 진노의 포도주가 담긴 잔이니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그것을 마시게 하여라. 그들이 그것을 마실 때에는 내가 그들에게 보내는 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미치리라.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분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겿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읽고 들을 때 마음속에 품어야 할 이미지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신약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겿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를 위해 치워달라고 요청하신 것은 단지 오래된 컵이 아닙니다. 여기서 언급된 것은 바로 이 잔, 즉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인간의 죄에 대해 쏟아진 진노, 그리고 그에 따른 형벌의 잔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단지 이상하고 독특한 언급 이 아닙니다 . 그것이 내가 거기에 나열된 모든 구절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두 적을 필요는 없지만 널리 퍼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묘사된 방식이며, 생생합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아시는 분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알코올 중독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네트워크 전체에 절대적인 파괴와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생각할 때, 연합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파괴와 혼란을 초래합니다.

글쎄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몇 가지 약속도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실제로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는 지금 있는 곳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70년이 차면 내가 올 것입니다.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이행하여 여러분을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한 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익숙한 것 같나요?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번영시키려는 계획입니다. 미래에 희망을 드릴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현된 것임을 주목하십시오

나는 그 구절이 일종의 수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이지만 여기서 원래의 맥락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나에게 기도해 줄 것이다. 내가 들어줄게.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만나리라. 정말 놀라운 약속이군요. 사람들이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은 발견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찾을 때 어려운 일이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멘델스존의 엘리야가 바로 이 구절에서 테너 아리아로 시작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각주로 생각하세요.

31장, 조금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 언약. 깨진 언약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33절 이하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나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 같나요? 나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나는 그들의 마음에 나의 토라를 기록할 것이다. 더 이상 돌판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ی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호세아 같군요.

더 이상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나 자기 형제에게 주를 알아라 하는 말을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의 사악함을 용서할 것이다.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정하신 이 곧 여호와께서 해를 정하여 낮에 빛나게 하시고 달과 별을 명하여 밤에 빛나게 하시며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시는 이시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러한 법령, 즉 자연 법칙, 낮에는 태양이 빛나고 밤에는 달, 모든 자연 과정이 작동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일 그들이 내 앞에서 사라지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더 이상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그것은 가장 파괴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진 엄청난 약속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다른 많은 내용을 읽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정보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바룩이 그의 서기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가 다른 나라들에 대해 예언을 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서기관. 애가를 읽어보셨다면 놀랍지 않게도 이 시는 실제로 다섯 편의 시로 구성된

시입니다. 국가의 완전한 파괴와 도시의 파괴, 한 민족의 파괴, 그리고 성전의 파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전혀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 그것을 보고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많은 파괴를 보지만 실제로는 그것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애도를 읽고 이 모든 일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4장은 삼행시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첫 번째 절에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어져요.

Tav 까지 작업하면서 진행하면서 매우 질서정연합니다 . 마지막 장은 역행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구절 각각은 그렇게 광범위하지도 않습니다 .

실제로 구절의 크기는 절반 정도 이며 이는 완전한 황폐함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확신합니다.

나는 오늘 남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신을 깨우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이따금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노래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나에게서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동정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크도다 노래를 부르신 적 있나요, 아니면 더 이상 부르지 않나요? 더 이상 당신의 신실하심을 위대하게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 지나간 세대에 묻혔습니까? 정말 멋진 찬송이에요.

제목은 이것에서 바로 그려진 첫 번째 줄입니다. 좋아요, 당신의 연민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도다 주님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3장 중앙에 있습니다. 즉 애가서의 중앙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중심입니다. 이 모든 것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파괴적이지만. 좋아, 계속해야 해.

하박국은 비록 작은 선지자이지만 작은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빨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존경심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에 관해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1장의 불평과 첫 번째 부분, 그리고 3장의 마지막 기도로 구성된 신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질문이 신앙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점이다. 우리는 종종 옳에 대해 생각합니다. 왜 악이 번영하는가 등등입니다. 하박국은 이것의 작은 축소판이다.

그리고 그는 묻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에 있는 나를 둘러보면서 악한 일을 보게 됩니까? 그것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고 만연합니다. 무슨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은? 자, 하나님의 대답은 여기서 두 번째 하위 글머리 기호입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그것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다지 걱려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나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악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서 응답하시고, 나는 물론 지금 나훔 뒤, 스바냐 앞의 하박국이 아니라 오바댜 어딘가에 있습니다.

주님의 응답. 계시를 적어 보십시오. 태블릿에서 명확하게 확인하세요.

그런데 바로 오지는 않네요.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보라, 그 원수는 교만하나 의인은 성실함으로 살리라.

즉, 하박국아, 하나님은 인내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인내심. 그리고 그 동안 충실하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핵심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하박국을 그토록 괴롭히던 악이 실제로 어떻게 자멸하게 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자멸할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의인들은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단지 믿음, 믿음이 아니라 신실함, 순종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언급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심판 중에 나타나시고 마지막에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여기서 그것을 선지자의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싹이 나지 않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에는 열매가 없으며, 밭에는 먹을 것이 없느니라. 그게 무슨 뜻인지 들으셨나요

? 우리는 굶어 죽을 것입니다. 우리를 육체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게 다 사실이지만, 준비하세요. 다음에 음식에 대해 불평할 때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시며

그분은 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응. 예레미야처럼 하박국의 세상은 그를 둘러싼 세상이 무너지고 있으며 그는 기아의 전망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교훈이군요, 그렇죠? 어쩌면, 아마도요. 자, 그게 교훈입니다. 계속합시다.

오바댜야, 오바댜는 누구에게 예언을 하는가? E, 에돔, 에돔으로 시작합니다. 오바댜가 예레미야와 거의 같은 시기에 예언을 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오바댜를 읽을 때 에돔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 예레미야서 49장 9절에 나타나는 포도와 이삭을 줍는 것과 따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언어적 유사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동시에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는 에돔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에돔의 멸망을 선언하는 한 장짜리 책입니다. 잠시 후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위 틈에 거하리니 그들의 때가 이르리라. 동시에 주의 날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디에서 주님의 날을 맞이했습니까? 개념으로.

조엘, 좋아요, 그리고 아모스도요. 아모스 5장, 특히 메뚜기 재앙을 당한 요엘. 여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나 모든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바댜서의 끝 부분을 읽어보면 지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네게브에서 에돔으로, 유다에서 세펠라로, 베냐민에서 길르앗으로 확장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 위해서는 지리적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들의 경계는 다시 확장될 것입니다. 복원은 정치적으로, 흥미롭게도, 적어도 그런 식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여기 갈라진 틈과 바위에 대한 작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곳은 유적지, 셀라(Sela)라는 고대 유적지인데, 셀라는 바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거칠고 왜 그곳이 살기에 상당히 안전한 곳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남은 2분 동안 스바냐를 하겠습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아, 여기서 하루 종일 보낼 수도 있지만 스바냐와 함께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눈앞의 화면뿐만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서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이 선지자는 왕의 계열에 있습니다.

그는 왕족입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히스기야의 아들.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스바냐의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날이다. 1장이 끝나면 그냥 듣고 바그다드 카불이라는 장소 이름을 지정한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의 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은 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환난과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며 전쟁을 외치는 날이니라. 온 세상이 그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홀연히 멸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약간 우울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3장에서 주목할 만한 진술을 듣습니다. 14절, 시온의 딸아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큰 소리로 외쳐라.

딸 예루살렘아, 마음을 다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형벌을 없애셨습니다. 그 날에 그들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리라

자, 잘 들어보세요. 나머지 내용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구절을 듣고 바로 시작하세요. 좋습니다. 다음은 다음입니다. 17절 3장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분은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으로 너를 조용하게 하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보통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소리로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이지 여기저기서 작은 중얼거림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예배당에 가시나요? 하나님도 당신을 기뻐하십니다.